틀리기 쉬운 우리말 1

1 '몇일'과 '며칠'

'몇일'은 '몇 년', '몇 월'과 같이 '몇'에 '일(日)'이 이어진 말이 아닙니다. 한글 맞춤법 규칙에선 '하나의 고유어이면서 어원이 분명하지 않으면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일'이라고 쓰는 것이 아니라 소리 나는 대로 '며칠'로 쓰는 것입니다.



2 '바람'과 '바램'

'바람'은 '바라다'에서 온 말이고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함,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종종 잘못 쓰는 '바램'은 '볕이나 습기를 받아 색이 변함, 볕에 쬐거나 약물을 써서 빛깔을 희게 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3 '틀리다'와 '다르다'

'틀리다'는 '사실이 옳지 못하거나 어긋나다'라는 뜻입니다. 반대말은 '맞다'입니다. 하지만 '다르다'는 '두 대상이 서로 같지 않다'는 뜻이기 때문에 반대말이 '같다(동일하다)'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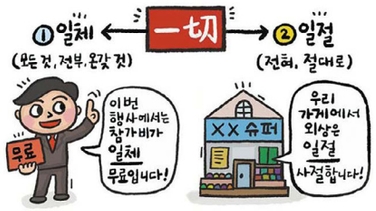
4 '잊어버리다'와 '잃어버리다'

'잊어버리다'의 기본형인 '잊다'는 '한번 알았던 것을 기억해 내지 못하다'라는 뜻입니다. 반면 '잃어버리다'의 기본형인 '잃다'는 '가졌던 물건이 자신도 모르게 없어져 갖지 아니하게 되다'라는 뜻입니다.



5 '일체'와 '일절'

한자 '一切(일체·일절)'에서 '切'은 '모두 체'와 '끊을 절'이라는 두 가지 뜻과 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황과 맥락에 따라 '일체'로 읽어야 할 때가 있고, '일절'로 읽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일체'는 '모든 것, 전부, 온갖 것, 완전히' 같은 뜻을 나타내고, '일절'은 어떤 내용을 부인하거나 행동을 금지할 때 쓰는 말로 '전혀, 절대로 ~ (아니다)'라는 뜻을 나타냅니다.



6 '가리키다'와 '가르치다'

'가리키다'와 자주 혼동하는 말이 '가르치다'입니다. '가리키다'는 '손가락 등으로 어떤 방향이나 대상을 콕 집어서 보여 주거나 말하거나 알려 준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가르치다'는 '지식이나 기능, 이치 등을 깨닫거나 익히게 한다'는 뜻입니다.



7 '~장이'와 '~쟁이'

많은 사람들이 '장이'와 '쟁이'를 잘못 쓰고 있거나 자신 있게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이'는 '어떤 기술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이고 '~쟁이'는 '어떤 특성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8 '키다'와 '켜다'

촛불과 어울리는 동사는 '키다'와 '켜다' 중 무엇일까요? '등잔이나 양초 등에 불을 붙이거나 전류를 통하게 하다'라는 뜻에서 쓰는 말은 '키다'가 아니라 '켜다'랍니다. '키다'는 일부 지역 사투리를 표준어처럼 잘못 사용하고 있는 말이랍니다.

